



4면
시내버스 정기권 성공 추진 힘 모은다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음 5월 10일) 제256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상임위원장 민주 싹싹이... 전북 '홀대' "도내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재선의원 6명에도 18개 자리 중 지역 안배 전무 "전적으로 밀어줬는데 해도 너무하다" 비판 여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이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싹싹이로 29일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3면) 18개 상임위원장 중 2명의 재선의원이 뽑혔다.

그러나 도내 의원들 중 재선 의원은 모두 6명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국회의원은 모두 배제됐다.

전북도민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으로 밀어주면서 제 1당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북 홀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선거 당시 도내에서는 민주당 1당 독식을 반대 하는 여론도 많았다. 다당제 구도로 가야 소수 의견도 존중

된다는 민심도 컸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시민 A씨는 "대통령선거 후보로 까지 출마했던 정동영 전의원과 싸움에서 이긴 김성주 의원에 민주당에서는 왜 상임위원장 한자리도 안주는지 지역 안배, 탕평인사는 온데 간데 없다"며, "민주당을 전적으로 밀어준 전북인들을 무시 해도 너무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병석 의장은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15일 선출된 6개 상임위원장

과 여야 국회 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들이다.

운영위원장에 김태년, 정무위원장에 윤관석, 교육위원장에 유기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박광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도종환 의원이 선출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계호, 환경노동위원회에 송옥주, 국토교통위원회에 진선미, 여성가족위원회에 정춘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정성호 의원이 선출됐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전주시, 지원센터 구축 확정... 국산화 전진기지 기대

전북도와 전주시가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과 국산화를 이끌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탄소소재 생체적합성 의료기기 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와 시는 오는 2023년까지 국비 60억원 등 총 104억5,000만원을 투입해 전북대병원 의료기기중개임상센터 인근에 1,400㎡(320평) 규모로 탄소소재 생체적합성 의료기기 지원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특히 전북의 강점인 탄소소재 산업과 전북대병원의 임상 기반을 연계해 탄소소재 의료기기 전용 제조 및 성능평가 기반을 구축, 신제품 개발과 임상시험 및 상용화까지 지원함으로써 탄소소재 의료기기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향후 지원센터에는 총 29종의 의료기기 제조시설과 시험평가 장비가 구축되고 개발된 의료기기 임상시험과 상용화 기업지원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소재 의료기기 지원센터가 구축되면 도내 탄소제품 제조 중소기업의 제품 다변화와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위한 애로기술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세계 정형외과,치과용 의료기기 시장은 554억 달러(약 60조원) 규모로 인구증가, 고령화에 따른 지속

적인 증가 추세이며 국내 시장도 약 3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의료기기를 탄소소재를 활용해 제작할 경우 기존 금속재(티타늄 등) 의료기기보다 부작용이 없고 X-RAY 투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탄소소재를 적용한 다양한 의료기기를 개발 중이다.

특히 외과용 수술기구와 외상고정장치, 인공관절, 치과용 임플란트 분야 등에 대한 집중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도와 시는 향후 이 사업을 통해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은 정형외과 및 치과용 의료기기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 KIST전북분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효성 등 관련기업 등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용 탄소소재 개발부터 중간재 개발, 국산 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명환 전북대병원 교수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분야에 관심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향상과 애로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도내에서 생산하는 탄소소재와 중간재를 활용한 의료용 소재 개발과 완제품 상용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탄소산업의 핵심분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병순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탄소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며 "탄소소재 의료기기 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도내 탄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우리지역에 탄소소재 생체적합성 의료기기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관련 기업들의 창업 및 집적화로, 우리시가 탄소소재를 활용한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우산 쓴 한복 마네킹' 전북지역에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29일 전주한옥마을에서 우산을 쓴 관광객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준수 철저"

송하진 도지사, 도민 고위험시설 방문자제 당부



송하진 지사가 강력한 요청에 나선 것이다. 송 지사는 도민들에게도 타지역의 음식점, 장례식장, 관광지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 가급적 방문을 자제, 부득이하게 참석해야 한다면 접촉 횟수와 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무원들도 타지역 출장과 불필요한 대면행사, 회의를 자양할 것과 반복적인 고위험시설 점검으로 자칫 형식적인 점검이 될수 있다며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

/유호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대전, 광주, 전남 등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연달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확산세가 우려된다.

이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철저한 방역 준수와 함께 도민들의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를 강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송하진 지사는 29일 코로나19 긴급 방역회의에서 지역감염 확산이 고조되는 상황임을 강조, 집단감염 위험시설은 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방역관계자는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시설

에서는 보여주기식 수칙준수가 아닌 엄소 하나하나가 지역방역망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8일부터 발생한 수도권 클럽발 확진세는 유흥시설,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소의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며 환자 동선을 따라 대전 등의 방문판매업소, 소규모 친목모임, 종교교모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내에도 지난 6월 17일 22번째 여고생 환자를 시작으로 지난 28일 27번째 환자까지 12일 동안 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발생한 확진환자가 1월말부터 시작한 도내 전체 환자의 약 1/4에 해당하는 등 도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접촉지점이 다양화되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안 해수욕장

7월11일 일제개장

변산
해수욕장

격포
해수욕장

상록
해수욕장

위도
해수욕장

고사포
해수욕장

모항
해수욕장